

尹 도어스테핑 중단...“난동 MBC 탓” “좁쌀 대통령”

MBC 기자·비서관 설전 사흘만에 대통령실 “취지 살리기 어려워져” 국힘·민주, 극과극 엇갈린 반응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잠정 중단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 국무총리 주례회 등 내부 정례 회의를 제외하면 외부 일정이 없었지만, 평소 도어스테핑은 국민과의 열린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도어스테핑은 국민과의 열린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불미스러운 사태'란 지난 18일 출근길 문답에서 MBC 기자가 윤 대통령에게 'MBC 전용기 탑승 배제'와 관련해 공세적인 질문을 던지고, 대통령 퇴장 후 해당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 간 공개 충돌한 일을 말한다.

여야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 잠정 중단을 두고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MBC가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이 도어스테핑 중단까지 이르게 한 원인이라며 대통령실 조치를 엄호했고, 야당은 대통령실이 언론 탓을 하며 '좁쌀러 대응'을 하고 있다며 맞섰다.

국민의힘 박정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은 MBC가 초래한 것"이라며 "MBC는 공영방송이지만 지금까지 일련의 모든 논란에도 사과 한마디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9월 윤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보도 논란에서부터 최근 대통령실 참모와 공개 설전을 벌인 MBC 기자의 언행 등을 싸잡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성일중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에서 해당

MBC 기자에 대해 "난동 수준"이라고 비판했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행 비대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기자가) 대통령 등 뒤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대통령실의 풍경"이라고 말했다.

당권 주자들이 'MBC 때리기'에 가세했다. 김기현 의원은 대통령실 참모와 MBC 기자와의 설전에 "일부 합당 미달 언론의 악의적인 난동질"이라며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고성 지르기, 슬리퍼 난동으로 대통령과의 소통 창구를 이렇게 배설장처럼 흔탁하게 해 놓고서도 사과도, 문책도, 재발 방지 약속도 하지 않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 조치 결정을 "잠 권위적인 발상이고 좁쌀러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불편한 질문을 거부하는 것은 달린 불통"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의 벽을 허물고 야당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최고위원 회의에서 "참모 점입가경"이라며 "무능한 실정의 책임을 언론과 야당 탓으로 돌리는 파렴치한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이 도어스테핑 장소에 가림막을 설치한 것을 거론하면서 "차라리 땅굴을 파고 드나드십시오"라며 "MBC 기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덩치는 남산만 한데 좁쌀 대통령이라는 조롱이 많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국민의 귀와 눈을 들어막으려고 하는 독재적 발상이 아니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설치한 것은 언론용 가림막이 아닌 국민을 향한 오만의 벽, 불통의 벽, 응징의 벽"이라며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형편없는 언론관으로 유명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당 회의에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영원히 소통하지 않겠다는 엄포는 기가 찰 노릇"이라며 "언론과 국민 사이에 벽을 세우려 한다면 대통령은 국민 불신이라는 벽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야당 원내지도부와 기념촬영을 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김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연합뉴스

정진석 “이재명 지도자다운 결단 촉구”

“정권퇴진 집회 참석은 대선불복”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정권퇴진 운동에 앞장선다면 "이재명 대표의 지도자다운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가 최측근이라 자랑했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된 데 이어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도 구속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검은돈이 두 사람(김 부원장, 정 실장)에게 흘러 들어가서 이재명의 (성남) 시장선거, 대선후보 경선, 대통령 선거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이 대표의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이 만들어 이 위기를 탈출하려 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조작의 칼날'이라 공격

했다. 그런 주장을 납득할 국민이 누가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정 위원장은 또 지난 19일 정권퇴진 집회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한 것과 관련, "취임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대통령을 끌어내리라는 구호를 외쳤다"며 "이건 대선 불복이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반헌법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사법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을 정치 공동체로 묶은 족쇄를 풀어야 한다. 그런 것이 앞서간 민주당의 지도자들이 위기의 순간에 보여준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 대통령 지지율 1.2%p 하락한 33.4%

리얼미터...국힘 지지도 올 최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한 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의뢰로 지난 14~18일 전국 성인 2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3.4%, 부정 평가는 63.8%로 각각 나타났다.

전주 보다 긍정 평가는 1.2%p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0.4%p 상승했다. 긍정 평가는 대구·경북(4.5%p ↑)과 인천·경기(1.4%p ↑), 40대(1.1%p ↑), 60대(1.9%p ↑) 등에서 상승했다.

부정 평가는 광주·전라(7.4%p ↑), 대전·세종·충청(4.9%p ↑), 부산·울산·경남(4.4%p ↑), 50대(4.6%p ↑), 30대(2.2%p ↑) 등에서 올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 대비 2.3%p 내린 33.8%, 더불어민주당은 1.3%p 오른 48.1%로 나타났다. 특히 3주째 하락세를 그린 국민의힘 지지도는 1월 1주 차(34.6%) 이후 약 11개월 만에 30% 초반대로 내려와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8%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국힘 조강특위 사고당협 위원장 선정 심사 착수

이들간 추가 공모 59명 지원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지난 17-18일 실시한 당협 조직위원장 추가 공모에 59명이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인경 조강특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특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기 접수인원을 포함하면 (심사 대상자는) 총 303명"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강특위는 이준석 전 대표 체제였던 지난 5-6월에 진행된 공모에서 이미 접수한 인원이 221명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당시 당협위원장이 내정됐던 14개 지역구 지원자들을 제외한 숫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지원했던 7명은 이번 추가 공모에서 지역을 바꿔 다시 신청했다고 함 대변인은 전했다. 다만 이들은 추가 접수자로 집계되지 않았다.

조강특위는 이날 '미입당자들에 대한 피심사 자

격 부여' 시한을 이달 30일로 결정했다. 조강특위는 향후 시도당 관계자들과 함께 각 지역별 현황을 정리하며 지역분석을 할 계획이다. 이후 접수자들에 대한 서류심사에 돌입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제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20주년!!

2022년 임인년 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 가능!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침단우리병원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집합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